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과 전망

Necessity & Prospects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최 수 명
Choi, Soo-Myung

전남대학교 농공학과

1. 현대의 농촌

전통적인 농촌과 대비하여 현대농촌이 보이고 있는 특징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기능과 역할면에서의 다양화 경향을 Bryant 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 전통적인 농촌에서는 생물생산 기능(Production)만을 수행하여 왔으나 도시산업사회화의 물결속에서 생활 및 산업활동 공간기능(Place), 위락수요의 제공기능(Play), 환경보전기능(Protection) 등이 현대농촌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농촌공간은 과거와 같이 농업·농민만의 전유물적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생활 및 생산활동이 수용되고 국민 또는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의 농촌은 전통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단순한 생물생산의 공간적 (또는 물리적) 기능구조에서 다양화된 공간적 기능과 이에 더하여 비공간적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구조로 이행되고 있는데 이의 변동폭이 현실개량을 크게 초월하는 본원적 구조변동차원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세계사적인 조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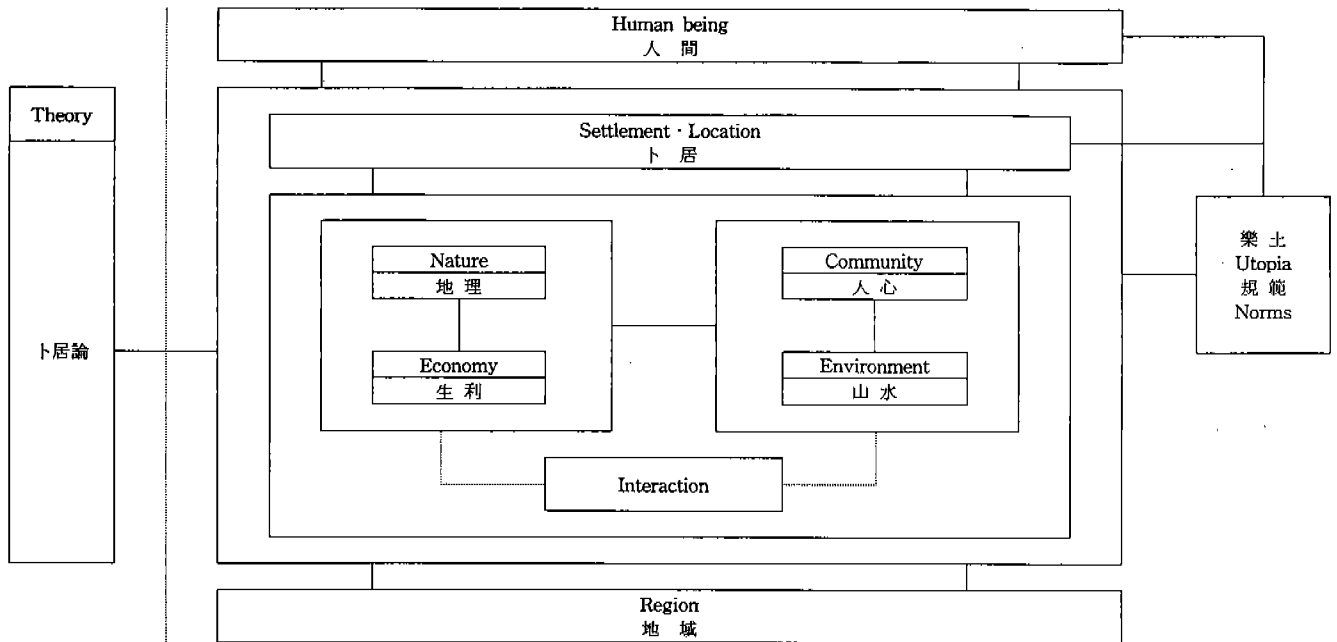
이는 농촌의 전면적 재구성(Rural Recomposition)이라 명명되고 있는 것으로서 농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대안이 라는 잠재력 부여측면과 다양화·복합화에 수반되는 갈등구조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문제생성측면이 함께 하는 양면성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대농촌은 단순하고 경직된 논리나 사고구조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이고 유연한 논리의 개발과 접근자세의 견지를 요구하고 있다. 잠재력과 함께 하는 문제의 병존은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농촌은 우리에게 많은 답과 여러사람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그것을 엮고 가꾸는 가운데 알찬 수확의 장이 될 것이므로 다양한 학문적 기초를 통합된 시각에서 엮어가는 자세, 즉 학제적 접근이 밀바탕 되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2. 농촌계획의 의미와 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전통적 지역이론은 “인간-자연-일원론”의 관점에서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즉,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생명의 흐름”으로 보아 인간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天地·乾坤·宇宙의 의미를 모두 포용하는 개념으로서 공간현상에 관한 해석의 근원이 된다.

실학사상에 기저하여 지역이론을 전개한 李重煥은 그의 유명한 저서 “擇里志”의 居卜總論에서 “居卜”의 조건 또는 판단기준으로서 地理·生利·人心·山水를 제시하면서 제조건의 충족상태를 “樂土”로 규정하고 있다.²⁾



→ 體系흐름 (System flow)

→ 影響流 (Influence flow)

그림 - 1 擇理志 Paradigm 의 개념적 도식

자료 : 韋元學, 1993, 擇理志 研究, 新陽社, p.159

大抵卜居之地 地理爲上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 非樂土也
 地理雖佳 生利乏則 不能久居 生利雖好 地理惡則 亦不能久居 地理及生利俱好
 而人心不淑 則必有悔吝 近處無山水可常處 則無以陶瀉性情

“대저 居住할 곳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地理’를 살피고, 다음에 ‘生利’, ‘人心’, ‘山水’를 관찰해야 한다. 네가지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樂土’라고 할 수 없다. 지리가 아름다우나 생리가 없으면 오래 살 곳이 안 되며, 생리가 좋고 지리가 좋지 않아도 역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지리, 생리가 모두 좋아도 인심이 좋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함이 있을 것이고 근처에 두고 朝夕으로 감상할 만한 山水가 없으면 맑고 아름다운 情緒를 기를 수 없다.”²⁾

여기서 居卜이란 거주지를 가려 정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나고 있으나 낙토의 개념과 함께 고려한다면 인간정주의 개념으로 外延할 수 있는데 擇理志가 지향하고 있는 Paradigm 의 概念을 圖式化하면 그림-1 과 같다.

擇理志 이론에서는 地理·生利와 같은 물리적 측면은 물론이고 人心·山水와 같은 社會環境的 또는 社會文化的 측면이 통합된 체계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空間 및 住居形態는 包括的 범위의 社會文化要素가 영향하는 산물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農村計劃學을 “農村에서 多樣하게 展開되고 있는 人間活動의 社會的·經濟的構造를 분석함과 동시에 바탕이 되고 있는 自然, 그리고 道路·水路·建物과 같은 物理的·空間的 구조도 함께 연구하여 아름답고 건전한 농촌을 지향함을 모색하는 학문분야” 라고 정의하는 것은³⁾ 擇理志에서 설파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지역발전 Paradigm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농촌계획은 국토공간상에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구성지역을 계획범역으로 하는 지역계획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최종적인 지향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발전은 결과적인 정태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의도적·계획적 활동 또는 과정인 지역개발이 전제되어야 그 실현이 가능해 진다.

지역개발은 백성이 그가 사는 곳(터·장소·지역·국토·땅)에서 정착·안주하여 平康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가 백성을 편안히 떠받치는 터가 되도록 하고 한편 백성으로 하여금 터살이(정주)를 바르게 하여 국토를 바람직하게 이용·개발하는 일이다. 이러한 지역개발의 접근방법은 공간적 접근(Spatial Approach)과 비공간적 접근(Aspatial Approach)으로 대별될 수 있다.⁴⁾

사람은 땅위에 살아야 하는 만큼 활동을 위해 공간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간적 구조와 흔적을 남긴다. 한편 사람의 활동과 생각은 기존의 공간적 구조와 흔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양자는 교호적 산물인 지역문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지역문제의 해결 또는 지역개발은 지역조작, 즉 사회·경제 및 정치적 기제가 결과하는 지역구조간의 갈등이므로 비공간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적 기제에 대한 이해와 처방이 완결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런 활동을 담는 그릇인 바람직한 지역구조에 대한 공간적 접근이 수반되어 바람직한 지역적 틀을 형성하므로써 비공간적 측면이 갖는 왜곡구조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촌계획은 각 부문간의 교호적 관계에의 통합적 접근노력, 즉 학제적 접근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3. 학제적 접근의 현황 및 전망

농촌계획은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같은 인간삶의 터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구국가에서는 지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고, 특히 인문지리학, 취락지리학, 농업지리학의 분야에서 핵심영역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통합하여 농촌지리학(Rural Geography)이 독립된 분야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농촌의 사회적 구조와 그 변동을 연구하는 농촌사회학 분야가 도시사회학과 대비 발전되므로써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도시산업사회화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지역개발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필요한 각 전문분야의 참여와 관심이 유도되었다. 농촌산업의 발전에 관계되는 농학, 임학, 수산학, 그리고 농업경제학 분야, 농촌의 물리적 기반조성부문을 담당하는 농공학(농업토목)분야와 농촌건축분야에서 각개 전문영역별로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환경과 위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조경학 및 관광분야에서의 접근이 새롭게 추구하고 있다.

도시화의 영향이 농촌지역에도 광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2원적 도농구분은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농촌주민의 의식구조·생활형태(Life Style)가 급격히 도시화하고 있으며 농촌의 산업구조도 2, 3차산업의 구성비율이 1차산업을 크게 압도하고 1차산업 또한 산업화되고 있어 통합적인 지역경제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도시화(가칭) 및 지역경제학 분야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촌이 농촌이라는 실체를 구성하는 하위체계 또는 요소들로 단순히 집합되어 있는 단순한 전부가 아니라 각개요소들이 상호교류(Communication)되면서 연계되어 있는 체계라는 시각에 기저하여 각개 전문분야가 공동목표를 향해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도시(계획)학이나 지역(계획)학처럼 아직 학문분야로서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진 농촌(계획)학의 정립·발전이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외연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간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이 갖는 존립 및 발전 가능성을 학문적·이론적으로 근거해 주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새

로운 농촌상을 정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준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독자적인 농촌계획학의 정립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계획에 대한 학제적 접근은 체계론적 접근방법을 기저로 하여 농촌발전에 대한 이론적·기술적 골격구조를 다원적이면서도 또한 통합적인 시각에서 구축해 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독자성이 인정되는 “농촌계획학”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擇里志에서 제시되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인간의 삶”이란 경제·물적기반은 물론이고 지역사회·환경이 어우러진 통합적 접근에 의해서만 올바른 추구가 가능함을 체득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새삼스럽게 농촌계획에 대한 학제적접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무지와 과욕·오만에 의해 농촌문제 역시 우리는 지난 역사 동안에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발족된 농촌계획학회에 농촌발전과 관련된 분야가 총망라되어 참여하고 있고, 각 개 분야의 전문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농촌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뜻을 모아가고 있는 것은 각개 전문 분야라는 구슬을 꿰어 농촌계획학이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의 속담이 더욱 더 가슴에 와 닿는 시기인 것이다.

參考文獻

1. Bryant, C.R., L.H.Russwurm and A.G.McLellan, 1985, The city's countryside, Longman
2. 韋元學, 1993, 擇里志 研究, 新陽社
3. 日本農村計劃學會, 1993, 農村計劃學の展開
4. 朴西浩 外, 1988, 地域開發論, 錄苑出版社